

“질서정연한 예술계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싶다”



작년과 올해 봄, '다원예술'(Interdisciplinary Art)을 표방하는 다소 낯선 축제가 열렸다. <스프링웨이브>(2007)와 <페스티벌 봄>(2008)이 그것이다. 다원예술이란 장르의 구획에 사로잡히지

<스프링웨이브>와 <페스티벌 봄>의 디렉터 김성희 인터뷰

않고 전복과 융합을 추구하는 현대

예술의 새로운 경향. 이 두 축제는

장르의 구획이 여전한 한국예술 지형에서 파격적인 실험을 보여주

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축제의 또다른 공통분모가 있다면, 바로

디렉터 김성희다. 그동안 꾸준히 해외의 따끈따끈한 컨템포러리

예술을 소개해온 김성희를 만나, <스프링웨이브>와 <페스티벌 봄>

의 공통점과 차이점, 의미와 성과 등을 들어보았다.

글 김소연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박정훈

낮선 축제가 불러일으킨 호기심

“〈페스티벌 봄〉 들어봤어요?” “〈페스티벌 봄〉이 뭐야?”

지난겨울 끝자락 즈음 〈페스티벌 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런데 모두 들 묻기만 하고 답을 하는 이가 없었다. 답 없는 물음은 봄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자주 들려왔고, 처음에는 흘러들었던 이 페스티벌이 궁금해지던 차에 페스티벌 봄을 소개하는 메일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을 빼곡히 소개한 안내문을 찬찬히 읽어보아도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작가도 작품도 모두 생소한데다가, 작가와 작품명, 표현 방식과 내용도 다음과 같은 짧은 소개가 전부였다. ‘라비 무르에, 레바논, 〈담배 끊게 해줘〉(Make Me Stop Smoking), 렉처-퍼포먼스 형식의 연극, 진실을 복원하는 정당성에 대한 질문.’ 렉처-퍼포먼스(강의식 공연), 필름/인스톨레이션, 필름/연극, 독립영화/다큐멘터리 필름 등 작품의 형식들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이것만으로 이 낮선 축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었던 것은 ‘디렉터 김성희’라는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성희는 〈모다페〉(MODAFE, 국제현대무용제)의 프로그램 디렉터이자 국제다원예술축제 〈스프링웨이브〉 공동디렉터로서, 그간 해외의 컨템포러리 아트를 꾸준히 소개해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다원예술축제’를 표방하면서 첫 회를 연 스프링웨이브는 예술계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윌리엄 포사이드, 로메오 카스텔루치, 라이문트 호계, 제롬 벨 등 참여 작가의 면면도 화려했지만, 축제가 펼쳐보이는 새로운 예술 형식들이 흥미로웠던 것이다. 예를 들어 개막작이었던 윌리엄 포사이드의 〈흩어진 군중들〉은 후기 고전주의 발레 안무자로 알려져 있는 작가의 명성과 달리, 로댕갤러리 가득 하얀 풍선을 채워놓은 설치 작업이었다.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헤이결〉은 구체적인 서사나 별다른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오브제나 레이저빔, 사운드만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연극이었다. 스프링웨이브에서 소개된 이런 경향은 ‘실험 예술’마저도 여전히 장르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국내 예술계에서는 낯선 것이었지만, 예술계나 (비록 소수의 애호가층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객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이 페스티벌에 관심을 갖게

했고, 더불어 익숙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동시대 예술의 보편성에 공감했던 것이다. 스프링웨이브는 잠재되어 있던 예술계의 요구를 이끌어낸 매우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페스티벌 봄은 스프링웨이브의 연장선에 있었다(스프링웨이브는 단발의 축제로 끝나고 말았다. 올해는 열리지 않았던 것). 낯선 이 축제를 지켜본 것은 순전히 김성희 디렉터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거기에 스프링웨이브를 넘어서는 또 다른 새로움이 있었다. 스프링웨이브가 예술의 형식과 언어에 대한 문제제기를 잘 정돈하여 보여주었다면, 페스티벌 봄은 예술이 존재하는 맥락과 존재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좀더 근원적인 문제였기에 급진적이었다. 스프링웨이브를 잘 차려진 프랑스 정찬에 비유한다면, 페스티벌 봄은 퍼덕 거리는 날것의 신선함일랄까. 페스티벌 봄으로 우리는 예술의 실험과 혁신의 또 다른 새로운 방향을 만났다.

스프링웨이브 VS 페스티벌 봄

문화예술 지난해 스프링웨이브가 국제 다원예술 축제를 표방했을 때 좀 놀라웠다. ‘다원 예술’은 정책적으로 제기된 용어로 아직 예술계 내에서조차 낯선 용어이다. 국제 규모의 축제를 열면서 선뜻 낯선 용어를 표방하는 것은 모험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성희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다. 당연히 공적 지원도 필요한데, 현재 예술지원은 장르별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한 장르 구조에서 유일한 틈이 다원예술이었다. 다원예술의 개념이나 다원예술이 지칭하는 분야는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성급하게 개념을 규정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좀더 안정적인 언어를 선택한다면 ‘컨템포러리 아트 페스티벌’, ‘현대예술 축제’가 정확할 것 같다. 국내에서는 현대성을 앞세우는 작업들도 여전히 장르로 구획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장르의 경계를 부수고, 장르와 장르가 섞이면서 기존의 장르로 귀속되지 않는 작업들이 활발하다. 나는 예술이 감동을 주기보다는, 논쟁을 촉발하고 그래서 예술계가 액티브해지기를 바란다.

문화예술 그런데 스프링웨이브에 대한 지난해의 대대적인 관심에 비하면, 올해 페스티벌 봄은 너무 조용히 치러진 것 같다. 단박에 눈길을 끄는 스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알음알음 입소문으로 페스티벌 봄 소식을 접했고, 또 워낙 조용히 치러졌다. 페스티벌 봄에 대해 아직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김성희 3월 개막이었는데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한 건 겨울이다. 그러다보니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시간과 돈 모두 부족했다. 페스티벌 봄은 스프링웨이브와는 다른 관심에서 시작된 다른 축제이다. 스프링웨이브는 지난해 행사로 마무리했다. 결





산을 하고 보니 도저히 지속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스프링웨이브를 정리하면서 다시 축제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페스티벌 봄의 준비가 늦어졌던 것에는 그런 이유도 있다.

문화예술 다른 축제라고 하지만, 페스티벌 봄이 스프링웨이브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장르를 비롯해 기존의 관습을 뛰어넘는 새로움은 스프링웨이브와 페스티벌 봄 모두에서 드러난다. 김성희 디렉터가 또 연결고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김성희 개인적 취향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 국내 예술계에 필요한 자극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예술을 좋아한다. 기술적 장인보다는 통찰력과 직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예술의 오리지널리티가 나온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나 개인의 취향만은 아니다. 현대예술은 질서에 대한 질문이고 회의이다. 그러한 가치가 배제된다면 어떻게 현대예술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반면 국내 예술계는 너무 질서정연하다. 어떤 면에서는 관객보다 창작자들이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서정연한 예술계에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 축제를 만들 때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관심은 스프링웨이브나 페스티벌 봄 모두 마찬가지이다.

형식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벗어났다

문화예술 그런데 질서정연한 예술에 혼란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스프링웨이브와 페스티벌 봄이 주목하는 지점이 다르다. 페스티벌 봄은 컨템포러리 아트에 대한 이해를 좀더 확장시켜주는 것 같다. 스프링웨이브에서 기존 예술의 형식적 관습에 대한 질문이 강했다면, 페스티벌 봄은 예술이 놓여있는 사회정치적 관습에 대한 질문이 강한 것 같다. 김성희 디렉터가 굉장히 정치적인 작품들을 선택했다는 말도 들리더라.



왼쪽부터 라비 무르에의 <담배 끊게 해줘>, 네집 벨카디의 <VHC-칼루차>, 벨기에의 단체 베를린의 작품 <보난자>, 우웬광의 <노동자와 춤을>

김성희 정치성 자체를 주목한 건 아니다.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조건이나 의도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물론 나 개인의 관심이 변화한 데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스프링웨이브는 예술 그 자체의 이노베이션에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관습이나 문법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왜 만나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 주고 싶었다. 그리고 비주얼아트 프로그래머와 퍼포밍아트 프로그래머가 공동으로 만든 축제이다보니 두 영역의 접점을 찾아야 했다. (스프링웨이브는 아트 선재센터 학예실장을 역임한 김성원과 김성희가 공동디렉터를 맡았다.) 극단적으로 두 영역에 걸쳐 있는 작품들을 선택했다. 반면 페스티벌 봄은 우선 공동디렉터의 틀이 아니었고, 또 나도 예술의 형식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났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형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이상 흥미롭지 않았다. 형식 자체에서 관심이 이동하는 것은 최근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감지되는 경향이다.

문화예술 페스티벌 봄의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표현 방식 자체의 혁신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낡은 방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라비 무르에의 <담배 끊게 해줘>는 렉처-퍼포먼스라고 소개했는데,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벨기에의 단체 '베를린'의 <보난자>는 필름/인스톨레이션 형식(영상과 설치 작품)이었는데, 작품을 전개하는 주요한 방식은 다큐멘터리 편집이었다. 네집 벨카디의 <VHC-칼루차>나 우웬광의 <노동자와 춤을>은 그 자체로는 다큐멘터리다. 작품을 볼 때 형식 자체가 긴장을 유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작품이 전하는 이야기가 아주 쉽게 다가왔다.

김성희 그렇다. 해석하는 데 설명이 필요 없는 구체적인 작품들이다. 스프링웨이브에서는 형식에 대한 혁신을 소개했는데, 그것을 읽어내고 감응하기 위해서 예술사적 맥락이라든가 기존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작품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도 예술에 대해 매우 혁신적인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문화예술 그런 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작품이 네집 벨카디의 <VHC-칼루차>가 아닌가



싶다. 칼루차는 스스로 영화를 찍지만 대부분은 그가 열광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모방이다. 할리우드를 어설피게 모방한 각본을 VHS 파나소닉으로 찍는다. <VHC-칼루차>는 지난해 스프링웨이블의 세련된 형식주의 작품들과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것 같다.

김성희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칼루차는 할리우드 영화광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캐스팅하고 자신의 피를 소품으로 해서 충격전을 찍는다. 그리고 카페에서 상영회를 한다. 이웃들은 그의 영화에 열광한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광적인 열정이 섬뜩하기도 하다. <VHC-칼루차>는 튀지니 수스에 사는 가난한 집수리공이자 영화광인 칼루차를 통해 튀지니 사람들의 절망적인 사회경제적 현실을 너무도 생생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그의 미친 열정은 튀지니 사람들의 절망적 현실에 대한 위안이기도 하다. 지난해 겨울 한 페스티벌에서 이 작품을 보고 함께 있던 한 제작자와 “그래 이게 바로 예술이야”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즐거워했다. 형식은 진부하지만, 사회나 예술에 대해 여러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문화예술 우웬광의 <노동자와 춤을>도 흥미로웠다. 단지 일당을 벌기 위해 현대무용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래를 끄집어내고 몸을 움직이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다만 노동자들과 예술가들의 갈등, 예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나 서로 다른 표현방식 등의 충돌을 좀더 깊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성희 <노동자와 춤을>은 중국 사회의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작품이다. 중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우웬광의 작업은 바로 그 지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을 연습하고 공연하는 낡은 공장은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사업과 관계가 있다.

문화예술 베를린의 <보난자> 역시 형식을 내세우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다. 작은 폐광마을이라는 배경도 그렇고, 단 7명이 주민의 전부인 이 마을에서 인간과 인간 사회의 복합적인 양상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김성희 베를린은 아주 젊은 작업자들이다. 그런데 작업을 하는 태도가 참 집요하다. 보



벨기에의 단체 베를린의 작품 <보난자>

남자라는 작은 마을을 찾아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그러한 집요함으로 그 작은 마을에서 인간 사회의 보편적 이면을 드러낸다.

문화예술 단순한 다큐멘터리 작업일 수도 있는데, 마을의 전경에 설치한 무대와 무대 밑에 설치한 다섯 개의 스크린이 동시에 상영되면서 인간과 사회의 이면 그리고 그 갈등을 매우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형식적으로도 흥미로웠다.

중요한 것은 '동시대성'

문화예술 사회정치적 맥락에 대한 질문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작품으로 개막작인 라비 무르에의 <담배 끊게 해줘>가 가장 주목받았던 것 같다. 한 남자가 스크린 앞의 책상에 앉아 텍스트를 읽고, 영상이 흘러나올 때면 턱을 괴고 말없이 영상을 보는, 어찌 보면 아주 평면적인 형식임에도 '압도적이고 신선하다'는 평을 들었다. 아쉽게도 나는 공연을 보지 못했다.

김성희 <담배 끊게 해줘>는 매우 사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아카이브에 집착한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모으고 정리하고 분류한다. 자신이 모은 아카이브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작가는 아카이브에 집착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은 다시 기억과 망각, 역사로 확장되고, 레바논의 현실로 심화된다.

문화예술 단순한 구조이면서도 성찰의 폭이 깊은 것 같다. 그런 점이 '신선하고 압도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김성희 사실 라비 무르에의 작품 중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다. 2005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공연했던 <슬라이만 실종사건>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 (김성희 디렉터의 이야기를 듣고야 라비 무르에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슬라이만 실종사건>은 당시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김성희 작품의 포인트가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 라비 무르에의 작품을 보면 예술에서 동시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라비 무르에에게 레바

논의 연극 전통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레바논에는 연극이 없다고 말했다. (아마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적 개념의 연극이 없다는 말일 것이다.) 또 그는 별다른 연극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연극으로 소개되고, 연극의 언어로 소통된다. 세계 공연계와 소통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런 작업들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작자는 가장 적극적인 관객이어야 한다

문화예술 국제 규모의 축제 디렉터를 계속 맡아왔다.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계속 소개하려면 해외 작가들이나 축제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갖춰져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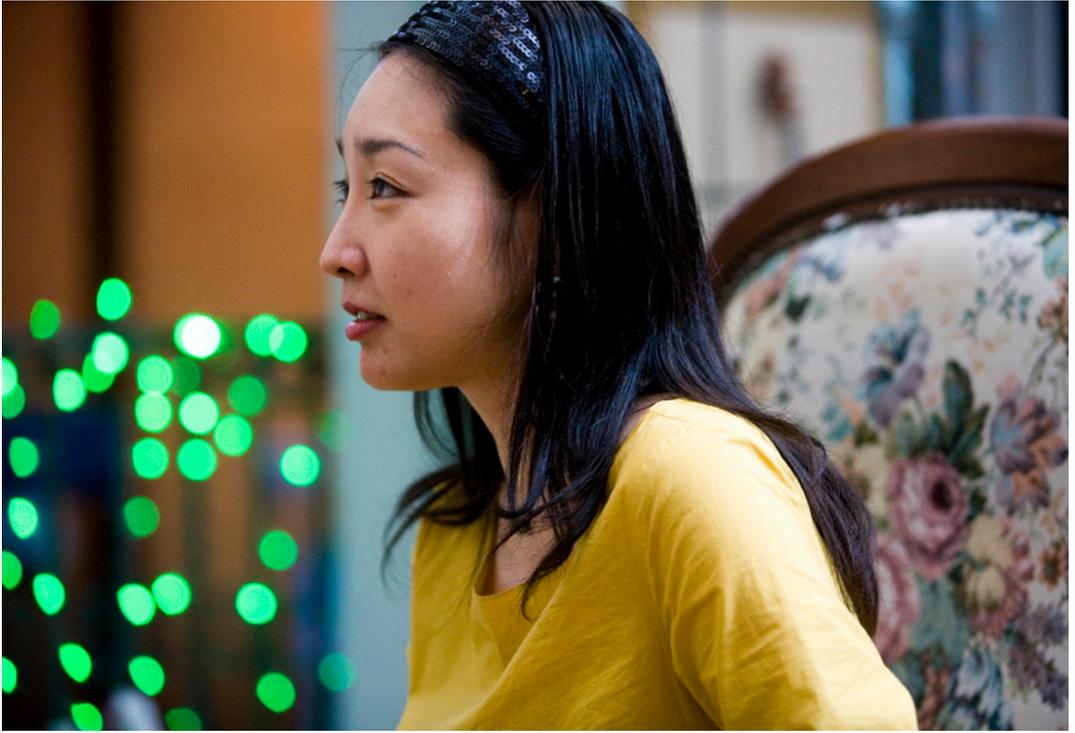
김성희 네트워크 같은 건 없다. 인맥이 아니라 일이 중요하다. 열심히 보고, 또 관심 있는 작가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이 힘이라면 힘이다. 스프링웨이브에서 아비뇽 페스티벌과 공동으로 라이문트 호계의 작업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작업을 처음부터 꼭 지켜봐온 덕이다. 막상 제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산이 감당이 안 되었다. 그때 호계가 그러면 아비뇽페스티벌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프로젝트가 꾸러진 다음에 나중에 결합하려고 했다면 그 정도 제작비로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제작하거나 작품을 초청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그래도 아직은 자본의 논리에 빈틈이 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을 만나면 가장 적극적인 관객으로 이들을 만난다. 자신의 작품이 너무 좋다며 지지하는데 작가들이 당연히 호감을 갖지 않겠는가. 세계 공연예술계는 거대하다. 하지만 나는 그중 아주 작은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보다보면 어느 순간 길이 보인다.

문화예술 호계의 경우 작업 초기부터 지켜봐왔다고 했는데, 남보다 먼저 작가를 발굴하려면 안목이 중요할 것 같다.

김성희 나는 내가 특별히 탁월한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되돌아보면 내가 프로그래밍한 것 중에도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들이 있다. 어떤 선배는 나의 장점이 사심 없이 작품을 보는 것이라고 하더라. 내가 이 작가와 만나고 이 작품을 소개해서 무엇을 얻겠다거나 하는 생각 없이, 작가를 대하고 작품을 대한다. 감정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나를 움직이는 작가와 작품을 신뢰하고 지지한다.

문화예술 모다페에서도 그렇고, 스프링웨이브나 페스티벌 봄 역시 해외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한다는 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것이 국제 규모를 갖춘 예술 축제들의 중요한 역할인 반면, 그렇게 소개되는 해외 경향이 국내 예술계와 어떤 접점이 있나 회의적일 때도 있다.

김성희 스프링웨이브나 페스티벌 봄은 규모가 큰 축제가 아니다. 국내 예술계와의 접



점은 규모 있는 축제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국내 예술계와의 접점은 축제마다 다르다. 축제들마다 다양한 색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스프링웨이브나 페스티벌 봄은 새로운 컨셉을 제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쇼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 내놓을 작품을 인큐베이팅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세계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예술 축제 디렉터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제작자 김성희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
김성희 뒤늦게 전공을 바꿔 기획과 제작을 시작했다. 아직 부족한 게 많고 공부할 것도 많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VHC-칼루차>에서 칼루차의 광기어린 열정을 보면서, 그게 나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의 최종 목표는 국제적 작업을 제작하는 제작자이다. 아티스트들과 대화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 제작자는 어떤 관객보다도 가장 깊숙이 작가를 만나는 사람이다.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글쓴이 **김소연** 본지 편집위원.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 관련 비평을 해왔으며, 문화정책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월간 <민족예술> 편집위원, <컬처뉴스>의 편집장으로 일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